

포스트모던시대 한국의 대중문화 본격해부

대중스타론서 신세대문화 분석까지 90년대 문화현상 폭넓게 거론돼

본지 2월 20일자에는 “가벼운 대중문화 진지한 문화이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각 문화계간지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고, 몇권의 문화이론서, 또한 몇권의 문화비평서들이 속속 출간되는 현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 글이었다.

그때 거론된 ‘문화이론서’로서는 르페브르의 「현대세계의 일상성」(세계일보출판부), 볼프강 등의 「상품미학과 문화이론」(눈빛),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문예출판사), 「기호의 정치경제학비판」(문학과지성사), 「섹스의 황도」(솔) 등이었고, 「문화비평서」로서는 애드가 모랭의 「스타」(문예출판사), 새물결출판사가 펴낸 「그림자와 함께 읽는 문화」 「에코의 대중문화론」 등이 있었다. 대중문화를 다룬 단행본들 거개가 번역물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들은 “근간할 예정” 내지 “기획하고 있다”며 그 목록이 기사 말미에 소개되고 있다.

국내필자 대중문화책 출간 이뤄져

6개월여가 지난 현재, 그 근간예정 혹은 기획물들이 속속 출간됐다. 거기에 더 보태어,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영화·대중음악·만화·광고·연극·미술·그리고 컴퓨터와 AV 하드웨어, 첨단미디어 등 모든 문화장르를 다루는 ‘문화계간지’인 「상상」(살림)이 창간됐다. 국내 필자들이 쓰고 만든 책들도 그 제목의 좌판만 빌려놓는 데에도 원고지 한 장이 넘는 부피가 되었다.

그중 총서 혹은 시리즈 형식으로 대중문화를 진단하는 것은 문학평론가 김훈씨가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빛이 있는 문화”(도서출판 새길)와 백지숙·엄혁·이유남씨 등 젊은 ‘문화평론가’들이 기획을 맡고 있는 “현실문화연구”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대중문화비평·이론지로는 지난 해 창간돼 현재 3호까지 나온 「문화과학」과 더불어 “60년대産 80학번 세대”들로 편집위원이 구성된 계간지 「상상」을 꼽을 수 있다.

“빛이 있는 문화”는 총서의 첫째권으로 “국내 최초의 본격 록(Rock) 사회사”인 「록, 젊음의 반란」을 펴냈다.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인 저자 서동진씨(27)는 “록의 메시지를 반사회적, 비윤리적, 비종교적인 것”이라는 일부 대중음악평론가들의 평가에 반대하여 “자본주의의 병폐, 소비문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 등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 신세대의 관점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책임편집자 김훈씨는 대중문화총서 간행사업에 나서게 된 이유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적 인식을 청산하고, 그 대립과 간극의 부자유를 타파함으로써 살아있는 문화의 본질적 핵심이 대중의 마음 속에 온전하게 자리잡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발간사를 통해 이 작업은 앞으로 “대중문화 전체를 문명사 안에서 체계화하고 해석해내는 작업과 살아있는 대중문화를 현장화하고 언어화하는 작업, 그 두 갈래의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적어놓는다.

한편 「압구정동: 유토피아·디스토피아」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를 이미 선보인 현실문화연구회는 ‘문화연구 기획 시리즈’로서 「광고읽기」 「결혼 이데올로기」 「청년문화: 김민기에서 서태지까지」 「신세대: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감수성」 「남자, 남성, 남근: 권위에 대하여」 「도시로서의 서울 읽기」 「여성지 연구」 「패션의 정치경제학」 등을 차례차례 출간할 예정이다. ‘문화교양 기획 시리즈’로서는 「역사가 묻어있는 미술이야기」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라: 철학에서 문화연구로」 「예술: 환영의 감옥」 「이미지 시대의 이미지 읽기」를 펴낼 예정이다. 대중문화의 모든 ‘장르’를 폭넓게 수용·분석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절실하지만 아직 생소한 주제”

그러나 이들 책들은 “현재로서는 절실하지만 아직도 생소한 주제”에 대한 모색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절실한 문제제기를 감당할 만한 이론들이 아직은 미약하고, 전문성을 갖춘 필자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중문화와 문화현실을 수용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 현상을 주목할 뿐 문화사적인 맥락을 심도있게 짚어 내려면 시간이 좀더 지나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문화과학」은 “전에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에 천착하는 이론지적 성격을 지닌다. 통권 3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주요 테마로 떠오른 ‘욕망’이라는 화두를 다룬다. 욕망의 이론사 혹은 욕망의 계보학과 더불어 우리의 문제로 접근시키기 위한 身土不二的 욕망학을 변혁운동의 차원에서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

대중문화를 폭넓게 수용한 ‘신세대 문화계간지’ 「상상」의 표지. 안성영·안성기·문성근·박광수씨 등 영화인들과 소설가 임철우·이창동씨의 사진이 나란히 실렸다.



「문화과학」의 그같은 이론적 천착은 대중문화현상에 대한 하나의 전체적 안목을 제공함으로써, 쏟아져나오는 대중문화 관계서적들의 지형도를 독자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다.

대중문화수용 문화계간지도 창간돼

93년 가을호로 창간된 계간지 「상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담아내고자 한다. 임재철(영화평론가), 서영채(문학평론가), 강현(대중음악평론가), 김종엽(대중문화평론가)씨 등 60년대産의 다양한 분야의 文士들이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그들 세대를 편집장 주인석씨는 “인문주의적 교양의 시대의 마지막이자 산업적 대중문화 시대의 처음 세대”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처음 세대’의 유년시절을 지배했던 만화주인공 요괴인간, 테슬러 타이거마스크를 다루는가 하면, ‘마지막 세대’의 입장에서 박완서씨와 윤후평씨의 중후한 소설도 심는다. “소위 대중문화”의 침범과 “소위 고급문화”의 보루를 한자리에 모아놓는다. 단지 병렬식 나열이 아니라 ‘남나름’과 ‘감싸안음’을 지향한다. 그들은 창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반성이 결여된 물질적 대중문화와 전문주의를 가장한 자폐적 엘리트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 간극을 메꾸는 비판적인 가교가

되고자 했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문화현상인 대중문화를 적극 수용하되 “어느새 괴물처럼 비대해진 대중문화산업이 자행하는 문화의 천박한 상품화, 즉 문명적 야만상태에 철저히 저항”할 것과, 깊은 감동을 주는 고급스런 문학을 존중하되 “장르를 권력화하고 세계와의 통로를 단아버린 소위 엘리트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도 신랄한 공격을 퍼부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그같은 편집방침에 맞추어 「상상」에서는 「‘요괴인간’, 대중문화, 그리고 1973년 겨울」(정준영), 「인류학적 오딧세이 또는 단백질의 인류학」(김종엽), 「비디오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구희영), 영화리뷰인 「쏟아지는 영화, 고르기의 어려움」 등의 글을 수록, ‘처음 세대’의 내면풍경과 관심사를 펼쳐 보인다. 또한 ‘마지막 세대’의 교양수준을 자랑하는 「토플러, 보드리야르, 불교」(김용호), 「소설의 운명, 1993」(서영채)도 자리잡았다. 물과 기름의 관계로 여겨지던 이질적인 두 문화의 만남은 박광수(영화감독), 안성기·안성영·문성근(영화배우), 이창동·임철우(소설가)씨의 대담인 「소설과 영화가 만나는 한 풍경」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김중식 기자